

일본 국제수산 월간동향

2024. 11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

목 차

1. 가다랑어, 동쪽 해역 B1에서 어획 호조3
2. 포경 할당량, 내년 이후 수산청과 고래연구소가 방침 결정4

- 일본 전국 주요 어항에서의 냉동 가다랑어 어획량이 전년 대비 74% 증가하여 19,217톤에 달함.
- 야이즈 어항에서는 동쪽 연안 B1 가다랑어(브라인 냉동 1급품)의 어획량이 전년의 약 3배, 2022년 대비 약 5.3배인 14,223톤을 기록
- 풍어의 영향으로 야이즈 어항에서의 평균 단가가 크게 하락했다. 9월은 전년 동월 대비 60% 저렴한 205엔/kg, 10월은 50% 저렴한 216엔/kg임.
- 미야기·게센누마의 생선 낚시 가다랑어 어획량이 20,305톤으로, 전년의 14,400톤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.
- 산리쿠 지방에서는 "돌아오는 가다랑어"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, 양뿐만 아니라 질도 유지되고 있음.



※ 출처: 미나토신문¹⁾

1)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7792> ('24년 11월 29일 검색)

- 일본 수산청과 일본 고래류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부터 6년간의 고래 어업에 관한 방침을 내놓음.
 - 보리고래의 총허용어획량(TAC)을 31마리 늘려 56마리로 설정. 최근 조사에서 얻은 상세한 데이터로 자원 상태 평가가 개선되었기 때문.
 - 브라이드고래의 TAC를 33마리 줄여 154마리로 설정. 최근 암컷 개체의 포획이 많아 번식에 대한 영향을 피하기 위함.
 - 한 마리당 고래고기 양(보리고래 9톤, 브라이드고래 7톤 정도)과 포경회사의 수요에 맞춘 공급 방침으로 고래고기 공급량에 큰 영향은 예상되지 않음.
 - 매년 수산정책심의회에 자문을 구하고, 혼획을 제외한 마리 수를 다음 해의 TAC로 설정하는 방침.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자원 상태를 판단해 나갈 예정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²⁾

2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7032> ('24년 11월 29일 검색)